http://dx.doi.org/10.18842/klaces.2019.15.1.1

문화번역 개념을 통한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 탐색*

김영순** · 최유성***(인하대학교)

<Abstract>

Kim, Youngsoon & Choi, Yuseong. 2019. Exploring the Intercultural Korean Education Paradigm based on the Concept of Cultural Translation. *The Language and Culture* 15-1: 1-24.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iscuss the concept and nature of cultural transl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paradigm of intercultural Korean education. The essence of the cultural translation is important because Korean education has a status as cultural activity for non-Korean speakers. Based on these practical concepts of cultural translation,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cultural translation can't be defined as simply a practice of learning Korean for Korean learners considering the background culture. And this conclusion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cultural education paradigm, a reasonable value for Korean education. Therefore, the research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in areas such as Korean language curriculum, Korean teaching theory, Korean textbook theory, and Korean teaching theory as the paradigm of intercultural Korean education. It emphasized the need for interculturalism of Korean education. Speciall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Korean language teachers should have an intercultural attitude rather than teaching the values of colonialism as in the discussion of cultural translation. Korean teacher has competencies with intercultural cultural ethics, not from a colonial perspective. **(Inha University)**

---

* 이 논문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7차 전국학술대회(2018.12.15.)에서 '문화번역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 또한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5802).

** 주저자

*** 교신저자(yssj97@gmail.com)

Keyword: Interculturalism(상호문화주의), Translation(번역), Cultural Translation(문화 번역), Korean Education Paradigm(한국어 교육 패러다임)

1. 문제 제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이미 학문적으로 증빙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 수준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음의 세 사람 간 대화에서 배경 문화를 이해해야만 대화의 의미는 물론 대화에 참여한 화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A: “애비야 술 먹고 늦게 다니지 마라. 이 애미 죽는 꼴 봐야겠니?”
B: “엄마는 직장 생활하려면... 그렇지 뭐!”
A: “그래도 아이들과 철수 애미 봐서라도 좀 일찍 다녀...”
C: “저 이가 우리 생각하는 줄 아세요. 주구장창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요.”

위 대화들은 가족 드라마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다. 적어도 한국어 화자인 경우 이 대화의 등장인물인 A, B, C의 가족 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만약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드라마 장면을 보지 않고 이 대화만을 들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대화 참가자들의 관계 파악은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결혼한 아들을 지칭하는 ‘애비’를 ‘father’로 이해한다면 정말 웃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번역의 중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번역에 있어서 원저자의 해당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어와 문장을 기계적으로 대입시켜 번역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번역을 기대할 수 없다. 제시된 대화 텍스트에서 나타난 ‘애비’의 번역을 순수하게 언어적으로 번역한다면 맥락상 오역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번역은 다른 언어 텍스트를 번역자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전

통적 번역과는 다르다. 문화번역이라 함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번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는 대부분 언어교육을 위해 문화번역을 활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문화번역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한다. 첫째, 위의 대화와 같이 언어 번역을 할 때 원본 언어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역으로 번역을 할 때 번역될 언어를 둘러싼 해당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앞의 두 경우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번역할 때 원본의 문화와 번역본의 문화를 고려하는 상호문화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번역학의 입장에서 문화번역은 어떤 나라의 문화에 대해 작가가 속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여행의 경험을 적은 여행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론한 언어교육을 위해 문화번역을 활용하는 입장과 전통적인 번역학에서 이해하는 문화번역은 진정한 문화번역의 본질을 단순하게 혹은 범위를 좁게 하여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화번역의 개념과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상호문화주의와 연결하여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자 한다.[1)]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 세종학당의 확장, 한류 열풍 등으로 힘입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한국어 교육의 외적 발전과 부합하여 한국어 교육에 관한 학문적 발전도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어 교육 관련 다수의 학회 설립, 이들의 대내외적 활발한 활동,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 증설과 한국어 교사 지원자 증가, 한국어 교육에 관한 논문 편수의 증가, 해외 대학의 한국학과 설립 증가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자 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유행처럼 번지는 한국어 교육의 열기를 말해주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을 만

1) '패러다임'이란 토머스 쿤(Thomas Kuhn)의 저서《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1996)에서 새롭게 제시하여 널리 통용된 개념이다. 패러다임은 사례, 예제, 실례, 본보기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라데이그마(paradeigma)'에서 유래했다. 쿤(1996)은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한국어 교육이 갖추어야 할 당위적 가치관으로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관의 방향을 상호문화주의로 간주하고자 한다.

큼의 성장 기점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의 철학적 패러다임에 대해 진중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을 구안하기 위해 최근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학문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어 온 문화번역 개념을 가져오고자 한다.[2] 문화연구에서 문화번역은 고정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번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정혜욱, 2015). 기존의 번역은 의미의 등가성 및 충실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문화번역은 번역물을 생산해 내는 메커니즘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문화번역은 문화 간이나 문화 내부 또는 문화 너머의 타협 불가능한 차이를 간과하지 않고 이 차이를 어떻게 세계와 연결하는데 집중한다(Bhabha, 2004).

문화번역은 식민국의 문화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문화의 장을 형성하게 유도하고 새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저항 운동이다. 호미 바바의 의미에서 문화번역은 문화교환의 새로운 양상으로써 기존의 문화를 깨뜨려 탈안정화 시키고 새로움에 대한 감수성을 창조하는 도구인 셈이다. 또한 기존의 동일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체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일련의 학자들을 탈식민주의적 문화연구론자들이라 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번역은 단지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문화 간 소통이라는 이차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번역은 근본적이면서 일차적이고, 재현을 통해서 억압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이게 하는 활동이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활동이다.

---

2) Hall(1996)과 Baldwin 외(1999)에서 밝힌 문화연구의 개념은 '일상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명제와 같이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거대 담론으로 인해 간과되었던 일상생활 영역을 '문화'로 보고, 그것을 실천적 연구 과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학문적 영역으로서 문화연구에서 보는 문화는 단순히 고상한 예술이나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생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연구의 학문적 범위는 지구화 담론으로부터 문화대중주의 비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이론도 중시하지만 실천적 개입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화연구 전공자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언론정보학과 등에서 비판적 저널리즘, 미디어 비평 등의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문화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번역의 개념은 다분히 상호문화적이다. 만약 우리가 한국어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문화지배국이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문화식민국 출신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문화번역 개념이 작동될 수 있다. 한국이 한국어 교육에 있어 문화제국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2. 문화번역의 태동과 연구 동향

2.1 문화번역의 탄생과 전개 과정

문화번역이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번역과는 달리 언어적 호환성이나 등치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문화번역에 영감을 선사한 벤야민과 야콥슨을 거론할 수 있다. 우선 윤성우(2007)의 벤야민의 번역론을 살펴보면, 벤야민은 번역을 번역의 원전에 의지해 있으면서 번역자의 모국어를 통해 원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과제로서 파악한다고 한다. 벤야민은 실제로 번역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의 유사성이 의미론적 등가 관계로 이해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번역자는 원전의 언어와 번역자 자신의 모국어 사이의 친화력을 찾아내어 번역어로 표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번역자는 번역되어야 할 매체로서의 원어와 자신의 모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언어적 친화성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벤야민의 번역론에 근거하면 전통적 의미에서 의역에 바탕을 둔 번역과는 달리 진정한 번역은 번역자의 모국어를 원전의 언어로 확장, 변용시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벤야민이 의미하는 번역의 생산적 기능이다. 그렇다면 번역의 목적은 원전의 의미를 의역을 통해 번역자의 모국어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번역이 의미 이해의 차원에서 원전의 언어와 번역자의 언어에 드러나는 피상적인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작업도 아니라는 것이다. 번역은 외국어를 번역자의 모국어로 재현하는 것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처럼, 벤야민은 역자의 모국어를 원전의 언어를 향해 확장, 변형시키는데 번역의 과제와 생산적 기능이 있음을 강조한다(정윤길, 2010: 249).

또한 벤야민은 원어와 번역어 사이의 상호소통성에 근거해 이 두 언어 사이에 순수언어의 존재를 유추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과 그에 따른 이해의 과정이 번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번역은 두 언어가 순수언어를 향해 가도록 하는 작업으로 간주한다. 그에게 순수언어란 추상적 의미를 지닌 언어가 아니라, 단지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실제적인 언어로 존재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다(정윤길, 2010: 250).

문화연구가 일상생활에 뿌리를 두고 학문적 영역을 구축해 온 만큼 벤야민의 번역에 관한 순수언어적 논의는 문화연구론자들의 호감을 살만한 좋은 소재였을 것이다. 나아가 벤야민의 텍스트 내 순수언어 찾기 시도는 언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괴 기능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번역은 원본만큼 독자적 지위를 갖게 되며 결단코 원본에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본 역시 번역이라는 재창조를 통해 원본이 지닌 가치를 유지하고 그 삶을 지속한다.

번역에서 문화번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로만 야콥슨의 번역이론을 만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번역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언어 내 번역(intralingual translation), 언어 사이의 번역(interlingual translation), 그리고 기호 사이의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Jakobson, 1959). 여기서 '기호 사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에는 언어의 기호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시각과 소설을 영화로, 영화를 드라마로 옮기는 매체 번역으로까지 확장해서 적용하려는 시각도 있다. 번역에서 문화번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단순하게 그 대상을 언어에서 문화로 확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간 혹은 문화 간 번역이란 그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비대칭성 문제를 포함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번역 작업은 사실상 정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이희은, 2014: 194-195).

벤야민과 야콥슨의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번역에서 문화번역으로의 이행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단순하게 그 대상을 언어에서 문화로 확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 사이 또는 문화 사이의 번역이란 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대칭성의 문제를 포함한다. 또한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나 일상생활의 더 큰 기호체계로 대상을 확장하면, 정확성이 아니라 일종의 잠재태인 '번역 가능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이희은, 2014: 195). 문화번역에서 등가성은 비대칭성으로 대치되고, 번역의 정확성은 번역 가능성의 문제로 대치된다.

전통적인 번역론에서 강조하는 번역의 등가성과 정확성에 따르면,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역이나 실수는 번역자의 무지이거나 타문화의 이해 결핍에서 벌어지는 오류로 평가한다. 그러나 문화번역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역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떤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힘과 조건들이 개입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맥락과 활동이 번역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번역의 관심은 번역의 재구성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희은, 2014: 195). 이런 번역의 재구성은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비한국어권 화자들에게 한국어 배움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고려한 '친절한'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2.2 문화번역 연구의 국내 수용 현황

어떤 학문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 문화번역에 관한 개념이 진화해 왔듯이 국내의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국내의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문화번역'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소논문들이 10편 남짓 검색되며, 단행본 역시 교보문고 등 도서 검색 사이트에서 2편 정도만 찾을 수 있다. 문화번역을 다룬 논문들과 도서들의 수는 적지만, 이들 문헌에서 문화번역의 연구 흐름을 개괄할

수 있다.

국내 연구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번역의 초기 논의를 담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탈식민주의적 문화연구론적 연구 경향을 포함한다. 우선 원전의 언어 텍스트가 담고 있는 문화와 번역작품의 해당 문화권의 문화를 고려한 초기 단계의 문화번역 논의를 담은 대표적인 연구는 박진임(2004), 김정현(2009), 한미애(2011), 이승재(2012), 이형진(2016) 등이 있다. 이 연구 중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몇 가지 연구를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박진임(2004)은 문학작품 번역에 있어서 번역 대상 텍스트가 내포하는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과 번역된 텍스트가 받아들여질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 확인하고자 하였다. 김정현(2009)은 번역이 상호문화성의 이해를 위한 매개체로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번역가의 언어와 모국어 사이를 끊임없이 교류하는 번역이 가진 성격으로 인해 번역이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올바른 관계의 성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승재(2012)는 아무리 단순한 번역이라 할지라도 단지 다른 언어로의 변환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복잡한 과정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이 논문에서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번역에 접근하였으며 문화적인 시각에서 번역의 언어학적인 측면을 다루었다.

둘째, 탈식민주의적 문화연구론 경향을 담은 국내 연구들을 거론하면 정윤길(2012), 신지은(2014), 이희은(2014), 박소연(2015), 이진아(2012), 정혜욱(2015), 전영선(2017) 등이 있다. 이 들 연구들에서는 탈식민주의적 문화연구론의 핵심적인 번역이론인 비판적 번역학을 기초로 해당 이론들을 설명하거나 특정 번역 텍스트의 사례를 기술하였다. 이 연구들 중 의미 있는 진술을 담고 있는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정윤길(2012)은 발터 벤야민의 번역론과 호미 바바의 번역론을 통해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략이 언어와 언어 사이의 번역 문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신지은(2014)은 삶의 다양한 영역이 윤리적 전환을 모색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은폐시키는 것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타자와 로컬 문화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희은(2014)에서는 문화번역을 전지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과 변환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번역이론이 문화번역 이론으로 옮겨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학문적 주제들의 교류로 이루어진 문화번역의 관점을 이론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또한, 단행본의 경우 김현미(2005)와 마정미(2014) 등을 들 수 있는 데, 김현미(2005)는 문화번역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타문화권 사람들과 어떻게 문화적 협상을 벌여나가는가에 주목한다. 마정미(2014) 역시 글로벌 사회의 형성과 관련해 문화번역의 지평 확대를 논의하면서 문화번역이 언어, 상징체계, 생활양식, 사유양식 증 특정 시공간적 맥락과 문화적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는 총체적 과정임을 주장한다.

앞서 제시한 국내 문화번역의 연구들의 공통적인 경향은 문화번역 이론과 개념들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며, 전통적 번역이론에서 출발하여 문화연구에 기반한 탈식민주의적 문화번역론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적 문화번역을 기반으로 한 문학작품 번역을 비판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으며, 문화번역의 본질을 토대로 통일의 패러다임을 구안한 연구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문화 연구적 문화번역 이론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논문은 전혀 없다.

위에서 논의한 국내 문화번역 연구들이 주는 시사점은 첫째, 번역된 텍스트를 단지 상호문화 이해를 감안한 언어적 변환만으로 보지 말고 번역 텍스트와 번역 활동 내에 내포된 정치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번역이 단지 원본작이나 저자를 둘러싼 의도나 문화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번역본이 선택한 모국어의 의미와 이것이 지니는 독자 수용적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문화번역을 다룬 국내 연구물들에서 등장한 글로벌 시대 문화번역의 개념은 한국어 교육에 상호문화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문화번역을 다룬 국내 연구물에서의 시사점들은 한국어 교육이 비한국어 화자들에게 평등한

의미의 언어교환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를 갖는 행위라는 가정을 성립시킨다. 그렇다면 반드시 문화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성찰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

3. 문화번역과 상호문화주의의 관계

3.1 인류학적 문화번역 개념과 상호문화주의

문화번역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대표적인 학자는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이다. 그는 인류학자로서 타문화를 기술하는 작업에서 연구자가 특정한 문화적인 편견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민속지학적 경험을 통해 강조한다(Geertz, 1973; 1983). 민속지학적 경험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문화와 구별되는 현지에서의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에서 얻는 경험을 말한다. 특히 민속지란 타문화에 대한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는 데, 이는 연구자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속지 연구자는 관찰자 혹은 연구자라기보다는 문화번역자라고 간주한다. 기어츠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 번역이라는 언어적 행위가 실제로는 번역가라는 인간의 수행력에 크게 의존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번역은 어떤 문화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활동이라기보다 번역가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이해나 지식이 개입된 번역 텍스트의 재구성 행위로 인식되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희은(2014)는 기어츠의 논의를 빌려 번역 행위가 여전히 타자의 문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낯선 타자의 문화를 모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가는 타자의 문화에 대해 아주 제한된 지식과 이해만을 갖고 있어서 적절하게 자신의 모국어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기어츠가 고민했던 것은 여전히 연구자 즉 번역자가 원본(타문화)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

움이었을 뿐 번역가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기어츠의 논거는 타자 이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상호문화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압달라 프렛세일레(Abdallah-Pretceille, 1999)에 따르면 상호문화주의는 상호작용 개념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는 다문화주의가 단순히 타문화간의 다양성을 인정한 것에 그쳤다면 상호문화주의는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집단성이 아닌 개별성을 기반으로 하며, 서로 다른 문화보다는 그 안에 있는 각 개인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때 각 개인은 문화의 산물이 아닌 문화 생산자로 이들이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실행하는 것이다(안희은, 2015; 조영철, 2018) 이처럼 인류학적 문화번역의 기본 입장과 상호문화주의는 유사한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번역이 어떻게 상호문화주의와 닮은 꼴로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번역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무렵으로 볼 수 있다(Venuti, 1998/2007). 번역학이 기존의 틀인 언어와 문학에서 지니는 번역의 도구적 역할에서 벗어나 비판이론과 문화연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문적 패러다임이 변화된다. 이를 번역학의 문화론적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전환을 가져온 인물이 바로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ere)이다. 그는 1976년에 '번역학'이라는 명칭을 처음 제안하였고 이는 곧 번역이 학문의 지위를 얻는 선포 의미를 갖는다(André Lefevere, 2002). 이 선포는 번역이 중립적이고 기계적인 언어의 변환이 아닌 제국의 정복·점령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계기로 작동했다. 언어학, 문학, 역사학, 인류학, 심리학, 경제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가 번역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정혜욱, 2011).

번역의 문화론적 전환 이전에 번역학에서는 번역된 텍스트의 투명성과 번역가의 비가시성이 강조되었다. 이런 특성이 있는 번역을 '좋은 번역'으로 간주하였다. 다시 말해 좋은 번역이란 자신의 나라 언어처럼 자연스럽게 번역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번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의 번역학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등가성이나 번역가의 불가시성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주장한다. 이러한 결정적인 전환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비판적 번역학자인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이다. 그는 번역이 가지는 임무란 원작이 가진 이국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일성이나 원작의 투명성보다는 혼질성과 원저자성을 더 강조한다(Venuti, 1998/2007). 더불어 텍스트의 투명성이란 실제로는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지적한다(이희은, 2014: 200).

현대 번역학에서 문화번역의 개념은 번역이 원저자의 텍스트로 환원 불가능하며, 번역자의 새로운 창조물이며, 원저자를 둘러싼 문화와 번역서를 대하는 독자들 간의 상호문화적 소통을 가능케 하는 도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압달라 프렛세일레(Abdallah-Pretceille, 1999)가 주장한 상호문화주의의 핵심 가치인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인류학적 문화번역 개념에서 우리는 한국어 교육과 문화번역 개념에 관한 다음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한국어권 화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교수 행위는 원저작물로서 한국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비추어 상호문화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 가정은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 구축에 동기가 될 것이다.

3.2 후기구조주의 문화번역 개념과 상호문화주의

후기구조주의자들의 등장 이후로 근대적 번역관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언어가 가진 근본적인 기능이었던 재현과 지시기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립적이라고 믿었던 가치나 범주도 구성된 것임을 주장한다. 언어 자체가 투명성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주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로 인해 번역학은 탈식민주의와 만나게 되었다. 번역이란 새롭게 쓰기가 아니라 '다시 쓰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기구조주의의 논의로 인해 이러한 번역 과정에 번역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특정한 문화적 가치나 혹은 이데올로기가 반영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번역이란 언어의 등가성을 추구하기

위한 언어 대 언어 전환 같은 기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는 진화론적 과정 혹은 변증법적 과정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호미 바바는 프랫(Pratt, 1991)이 주장한 접촉지대(contact zone)라는 개념에 비추어 문화번역의 개념을 재설정하였다. 그는 문화번역을 문화의 혼종성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담론으로 보았다(Bhabha, 1994/2012). 이러한 바바의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모든 문화는 권력 관계에 있어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들의 경계나 접촉지대에서는 갈등이나 협상이 필연적으로 벌어진다. 문화번역이 이루어지는 장(場)에서 나와 타자는 계속해서 충돌하고, 이들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으며 재구성된다. 이와 같은 탈식민주의 관점을 지닌 문화 연구적 번역이론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번역이론의 확장을 가져왔다. 우선은 두 언어 사이가 아닌 세계적인 제국주의적 구조를 번역 연구의 프레임 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을 기계적인 과정이 아닌 권력 관계에 따라 이해하려는 시각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식민주의 번역모델에서 이분법적 관계 즉 원본-복사본, 식민자-피식민자, 의미-글자 간에 존재하는 차별적이고 비대칭적인 관계에 기초를 둔다. 반면에 탈식민주의 번역이론은 원본과 번역 사이를 이분법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때문에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번역이 원본을 전달하는 투명하고 비가시적인 도구라는 시각을 탈피하고자 노력하며, 번역이 원본보다 열등하다는 관점에 도전한다. 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적 관점의 번역 논의는 주로 주변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번역학의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의미의 등가성'은 비판해야 할 대상이다. 탈식민주의 번역이론자들은 유럽의 국가들이 자신의 식민지에 자신들의 문화를 완전하게 전달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과 등가성에 따른 번역 원칙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본다.

탈식민주의 번역이론이 등가성이라는 번역 원칙을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번역 활동이 제국주의의 확장을 돕는 도구이자 식민지화가 이루어지는 채널로 사용되었던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탈식민주의 번역이론에서는

등가성의 원칙과 원본의 우월함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나 번역이라는 과정에 내재한 식민지성을 비판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이희은, 2014: 204). 무엇보다 정치적인 제국주의가 끝난 이후에도 문화적으로 불공정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심지어 재식민지화가 이루어지는 데 번역이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Robinson, 1997/2002). 따라서 문화이론에 기반을 둔 탈식민주의론자들은 번역이란 평등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닌 문화적 불평등과 권력망이 작용하는 과정으로, 특정한 문화들이 우월성을 구축하는 비대칭적인 문화교류의 형식으로 인식한다(Venuti, 1998/2007).

지금까지 탈식민주의적 논의를 통해 문화번역 본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들 논의에서 문화번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번역자의 문화로 옮기는 단편적인 과정이 아니라, 두 문화 간의 차이나 갈등을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언어적 층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에 속한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다. 즉 번역이 문화번역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속에 담겨진 정치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번역의 과정을 원본 언어와 번역 언어 간에, 원본 언어와 그 해당 문화 간에, 원본 언어와 번역어 문화 간에, 번역어와 번역어 문화 간에 유기적으로 벌어지는 열린 형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번역은 타자 이해를 위한 상호작용에 목표를 둔 상호문화주의의 기본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반제국주의적이며 문화상대론적 배경을 지닌 문화번역은 상호문화주의에 포함될 수 있다.

4.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

4.1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담론

문화번역의 개념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물은 찾아볼 수 없지

만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호문화주의 지향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소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배현숙(2002), 박갑수(2010), 김영란(2014), 원진숙(2014), 김영순・최승은(2014), 윤영(2016), 윤영・손경애(2016), 김영순・안경화 외(2017)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배현숙(2002)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중 학습자 문화권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내용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문화 간 거리' 개념을 사용하여 한 개인이 만나게 된 두 문화의 인지적, 정의적 거리감으로 두 문화의 상이함을 부각시켰다. 박갑수(2010)는 한국어의 세계화에 기여 하는 방향으로 우호적 사해동포주의를 강조하였다. 한국언어문화교육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상호 간에 언어문화를 교류함으로 세계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이 공존공영하는 삶의 장을 만드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한다.

김영란(2014)은 최근까지 수행되어 온 한국어 교육과정 논의를 정리하면서 다문화 사회의 맥락에서 상호문화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원진숙(2014)도 다문화 사회의 언어교육 정책을 언급하면서 주류 문화권 언어인 제2 언어와 함께 소수 문화권의 언어인 계승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상호문화주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김영순·최승은(2014)은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상호문화학습을 위한 교육현장의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윤영(2016)은 세종학당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재 개발방안을 제안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일방적 전파와 확산이 다문화화 되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화 상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언어·문화권 학습자에게 오히려 반감을 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상호주의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윤영・손경애(2016)는 상호문화주의의 주요 특성으로 '상호 간의 교류 및 상호작용', '개별성'을 제시한 후 이 특성을 한국 문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교재를 바탕으로 상호문화주의 특성의 반영 정도를 문화교육의 내용 및 방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김영순・안경화 외(2017)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의 학회지『언어와 문화』13-2호의 기획 코너 '학습자 변인과 한국언어·문화 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기조를 발표하였다. 한 언어공동체의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문법구조, 그리고 해당 언어의 발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다른 문화권의 타자를 만날 수밖에 없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 혹은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목표로 문화 교육과정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는 언어교육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김영순・안경화 외, 2017: 217-234).

이 연구는 언어교육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한국어 교육에 이입시켜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으로 설정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선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첫째, 문화번역의 개념이 상호문화주의의 핵심 가치인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테면, 문화번역은 타자 이해를 위한 상호작용에 목표를 둔 상호문화주의의 기본 개념과 일치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반제국주의적이며 문화상대론적 배경을 지닌 문화번역은 상호문화주의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인류학적 문화번역 개념에 비추어 비한국어권 화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교수행위를 하는 것은 원저작물로서 한국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비추어 상호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문화번역을 다룬 국내 연구물들에서 등장한 글로벌 시대 문화번역의 개념을 통해 한국어 교육이 상호문화주의와 결합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이 비한국어 화자들에게 평등한 의미의 언어교환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를 갖는 행위이다. 위 세 가지 가정은 문화번역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4.2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의 과제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이란 바로 한국어 교육이 갖추어야 할 당위적 가치관으로 상호문화주의를 취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문화번역 본질적인 개념을 토대로 한국어 교육 제분야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앞 절의 논의에서 문화번역이 한국어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정을 설정했었다. 이 가정들은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이 상호문화주의와 결합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해 이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의 문화를 학습자 출신국에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와 학습자 나라의 문화가 상호 교류되는 상호문화주의적 가치관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문화번역이 단순히 번역학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실천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개념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번역의 본질이 문화상대론적 시각을 요구하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대두시켰으며,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전지구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가져 왔다. 이는 문화번역이 다층화, 다원화되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번역 개념을 토대로 한국어 교육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연구는 우선 한국어 세계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마치 '영어의 세계화' 신화로부터 얻어낸 교훈을 뒤따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비판을 토로한다. 인터넷, 자본 등을 앞세운 영어의 세계화가 언어의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획일화시키고 있는 경향을 경험했다.

한국어의 세계화가 자칫 이러한 영어의 세계화를 뒤따를 수 있고, 그 결과로 신문화제국주의 표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세계화가 식민주의적 관점이 아닌 상호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관계 속에서 확산되어야 한다. 문화번역 개념을 토대로 하면 한국어의 세계화는 상호문화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교재론, 교사론 등의 영역에서 상호문화주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 교육 상호문화 패러다임의 실천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문화번역의 개념을 대입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혹은 이중언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을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배현숙(2002), 김영란(2014), 원진숙(2014), 윤영(2016)의 지적에서와 같이 결코 상호문화주의적이지 않다. 물론 최근 개발된 다수의 교재 및 교육과정에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 도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립국어원, 국립구제교육원 등 정부 기관에서 재외동포학습자, 다문화가정 자녀, 여성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학습자별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를 이미 출판한 바 있으며, 부분적으로 교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 성취 기준 등의 설정에 있어서 민족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 이를테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난민, 중도입국 학생 등의 학습자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제시될 뿐이지, 민족별 문화를 반영한 상호문화적 교육과정이나 교재개발은 극히 일부 수행되었을 뿐이다.

한국어 교육과정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유형별 세분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유형별 교육과정 세분화에 학습자의 출신 국가 즉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유입되는 120여 개국의 이주자 출신 국가별 교육과정을 모두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민자 다수 국가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해당 국가와의 비교론적 견해를 담을 뿐만 아니라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교육과정의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어의 교수학습방법 역시 학습자 문회를 고려한 상호문화 친화적이지 못하다. 이는 문화번역에 있어서 번역서를 읽게 될 번역자의 모국어 사용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과정에 의한 등급 부여를 통해 구성된 교실에서 학습자 흥미 유발을 위한 교육보다는 실적 위주의 교육이 주

를 이룬다. 좀 더 학습자의 개별 학습이 유발되고 학습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상호문화적 교수법이 필요하다(김영순・최승은, 2014).

특정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클래스에서 교수자가 멘토나 진행자로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토의토론식 수업, 협동학습 기법을 활용한 문제해결식 수업, 롤 플레이, 플립 러닝 및 교육 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수업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학습자 클래스에서는 나라별 혼합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국가의 문화간 차이를 고려하여 어떤 경우에는 특정 나라의 학습자로 이루어진 클래스 구성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교수자 입장에서 한국어 교사-외국인 교사의 팀티칭이 가능하기도 하고, 특정 나라 출신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특정 국가 출신 지향 특성화된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개발 역시 학습자의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어 학습자의 유형별, 목적별에 특화된 교재가 개발되고 있으며, 특정 나라의 학습자 중심의 교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문화번역의 개념을 빌리자면 한국어 교재의 학습자 문화를 반영한 교재가 구안되어야 한다.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배태한 어휘와 문장, 학습 내용의 적절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한국적 사회문화 현상을 반영한 어휘나 문장의 활용보다는 그들 문화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 친화적 문화 사례를 교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여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의 문화 내용을 사례를 드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문화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에 호기심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한국어 교재가 특정 나라를 겨냥하여 제작될 경우 한국문화를 해당 언어로 번역해 제시해 놓을 필요도 있다. 문화를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한국어로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언어로 설명할 경우 학습자들이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

으며 자신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넷째, 한국어 교사교육에 관한 문화번역의 본질적인 개념을 도입한 입장이다. 한국어 교사 양성의 대상은 한국인 예비교사와 외국인 예비교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에서는 모두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한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관해 교사론 강의가 개설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어 교사론의 핵심은 한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교육자적 품성 그리고 교육자적 역량이다. 한국어 교사는 수련 과정에서 언어에 관한 지식, 한국어에 관한 내용 지식, 한국어 교수법에 관한 교육적 역량, 한국문화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정작 교육 심리적 차원에서의 학습자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에 관한 상대론적 시각, 교수자가 가져야 할 교수 철학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하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전문가로서 한국어 교사와 한국, 한국문화, 한국어에 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 간의 한국어 교수 시 소통적 맥락은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어 교사가 학습자 개개인의 문화적 특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일문화권적 학습자 교실보다 다중문화 학습권 교실 운영에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사는 비한국어 권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번역해 주는 문화번역자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혹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교사들이 식민주의적 번역자로 읽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예비교사로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특히 외국인 한국어 교수자는 이미 훌륭한 문화번역가적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교수자 보다 자신의 모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사 양성 방안도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통해 우수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한국과 어머니 나라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마련의 토대를 닦고 있다. 이 가운데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한국어 교사로 양성하여 어머니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학계에서 생소한 개념으로 여겨졌던 문화번역 개념과 그 본질을 설명하였다. 이 문화번역의 본질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어 교육이 비한국어권 화자에게 행하는 문화 행위로서의 위상을 갖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번역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개념을 설명하였고, 문화번역의 본질을 토대로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우선 문화번역은 기존의 전통적 번역론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적 대체, 원본의 보존과 재창조, 상호문화를 고려한 번역 등의 주안점을 넘어선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문화번역이란 기호와 기호 간의 변환과 같이 기호전환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 하의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되었다. 이런 문화번역의 실천적 개념들을 토대로 놓고 보면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번역이 단순히 한국어 학습자에게 배경 문화를 고려한 한국어 학습의 실행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결론은 한국어 교육의 당위적인 가치관인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을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설정함을 요구하게 된다.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문화번역 개념을 토대로 한 세 가지 전제를 설정했었다. 첫째, 문화번역이 타자 이해를 위한 상호작용에 목표를 둔 상호문화주의의 기본 개념과 일치하고, 반제국주의적이며 문화상대론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상호문화주의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교수 행위는 원저작물로서 한국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고유문화에 비추어 상호문화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한국어 교육 교수 행위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평등한 의미의 언어교환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를 갖는 행위이다. 이런 세 가지 가정은 문화번역 개념이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따라 4장에서는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제분야인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 교수학습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어 교사론 등의 영역에서 문화번역 본질을 참고로 한 영역별 개선 방안

을 제안하였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의 유형, 민족적 특성, 학습 목적 등과 학습자 출신 국가의 문화를 고려한 교육과정, 교수법, 교재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식민주의적 입장이 아닌 상호문화적 윤리를 지닌 한국어 교사 양성을 강조하였다. 향후 한국어 교육학 관련 학회와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화번역 본질을 토대로 한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자 · 홍성욱(2013) 『과학혁명의 구조』 (원저: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Thomas Kuhn (1996),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rd edition), 까치

김영란(2014) KSL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9(3), 국어교육학회, 60-92.

김영순 · 안경화 · 원미진 · 오장근 · 윤영(2017) 학습자 변인과 한국언어·문화 교육, 『언어와 문화』, 13(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17-234.

김영순 · 최승은(2014) 상호문화학습의 실천적 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어와 문화』, 1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7.

김정현(2009) 언어 번역에서 문화번역으로: 폴 리쾨르 번역론 연구를 통한 상호문화성 성찰, 『철학논총』, 57, 새한철학회, 95-120.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또 하나의 문화.

나병철(2012) 『문화의 위치』 (원저: *The location of culture*, Bhabha, H. (1994),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소명출판.

마정미(2014) 『문화번역』, 커뮤니케이션북스.

박갑수(2010) 한국어 교육(韓國語敎育)의 현실과 미래(未來): 한국어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국학연구론총』, 6, 택민국학연구원, 37-72.

박소연(2015) 문화번역 및 번역된 젠더에서 바라 본 식민 여성: 1938년 작 조선영화 『어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5, 한국여성문학학회, 283-321.

박진임(2004) 문학 번역과 문화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1), 한국번역학회, 97-111.

배현숙(2002)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178-199.

신지은(2014) 문화번역과 로컬리티 연구: 타자에 대한 번역가의 과제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7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4.

안희은(2015)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진숙(2014)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국어교육』, 144, 한국어교육학회, 1-36.

윤성우(2007) 발터 벤야민의 번역론에 관한 소고, 『번역학연구』, 8(1), 한국번역학회, 175-191.

윤영(2016)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재 개발 방향,『인문사회과학연구』, 50,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5-27.

윤영・손영애(2016)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방법 연구,『언어와 문화』, 12(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3-154.

이승재(2012) 문화층위와 문화소: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번역학연구』, 13(1), 한국번역학회, 137-166.

이진아(2012) 문화번역으로서의 민족무용: 최승희의 경우,『사회와 역사』, 95, 한국사회사학회, 157-200.

이형진(2016) 한국문학 번역의 문화번역: 한국문학의 문화번역 지점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 17(3), 한국번역학회, 139-164.

이희은(2014) 문화번역의 이론적 의미와 전지구화 시대의 영상번역,『미디어, 젠더 & 문화』, 29(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187-223.

임호경(2007)『번역의 윤리』(원저: *The scandals of translation*, Venuti, L. (1998),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열린책들.

전영선(2017) 통일문제의 생태주의적 인식과 문화번역의 가능성,『통일인문학』, 7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71-97.

정윤길(2010) 브라이언 프리엘의 식민주체구성과 혼종성: Translations를 중심으로,『현대영미드라마』, 23(2),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109-138.

정윤길(2012)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포스트콜로니얼 텍스트 읽기: 벤야민과 바바의 번역론을 중심으로,『영어권문화연구』, 5(1),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241-263.

정혜욱(2002)『번역과 제국』(원저: *Translation and empire*, Robinson, D. (1997), St. Jerome Publishing), 동문선.

정혜욱(2011) 문화번역의 사적 전개 양상과 의의,『세계의 문학』, 36(3), 민음사, 343-357.

정혜욱(2015) 주디스 버틀러와 문화번역의 과제,『비평과 이론』, 20(1), 한국비평이론학회, 141-174.

조영철(2018)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교사의 상호문화교육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색.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미애(2011) 문화번역에 대한 인지시학적 접근: 황순원의『학』을 중심으로,『번역학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205-229.

Abdallah-Pretceille, M. (1999) *Diagonales de la communickation interkulturelle*, Anthropos Research & Publications.

André Lefevere (2002)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Routledge.
Baldwin, E. et al. (1999)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London: Prentice Hall.
Bhabha, H. K. (200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Classics.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Geertz, C. (1983) Found in translation: on the social history of the moral imagination.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Hall, S. (1996) 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 in What is Cultural Studies?: A Reader, ed. John Storey, London: Arnold, 31-48.
Jakobson, R.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Pomorska, K., & Rudy, S. (eds.). (1987). *Language in Litera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ratt, M.L. (1991)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91.

이름: 김영순
직위: 교수
소속: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100, 인하대학교 서호관 217호
전자우편: kimysoon@inha.ac.kr

이름: 최유성
직위: 박사과정 / 연구원
소속: 인하대학교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100, 인하대학교 서호관 220호
전자우편: yssj97@gmail.com

투고일자: 2018년 12월 29일
심사일자: 2019년 1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2월 7일